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10.30)

1. 강제징용 판결 관련

□ [일본 정부 동향]

- 스가(菅) 관방장관은 30일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최종적이면서도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협정은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부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대원칙이다. 한국 정부는 사법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 문제이며 국제법상 의무위반을 정당화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고 발언¹⁾
- 또한 “일본은 협정의 틀에 따라 양자간 협의 및 제3국 중재를 제안했지만, 한국은 전혀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한국 측이며, 일본은 한국 정부에게 자신들의 책임으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된 것을 시작으로 현명한 대응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고도 발언
- 한편 1년 이상 실시되지 않은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 전망과 관련, 관방장관은 “현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정상회담의 실시는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절하게 판단할 것” 이라고 언급하는 정도에 그침.
- NHK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치켜든 깃발을 간단하게 내리지는 않을 것” 이라고 하면서도, “한국 내에서 일본과 대화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는 점을 들어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지 이어서 한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²⁾

□ [일본 기업 동향]³⁾

-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판결은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청구권 협정,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및 일본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향후에도 당사는 양국 정부의 외교 협상 등의 상황을 예의주시

1) 「「徴用」判決1年 「賢明な対応を強く求める」官房長官」 『NHK NEWS WEB』(2019. 10. 30).

2) 「政府 韓国側の対応注視 「徴用」判決から1年」 『NHK NEWS WEB』(2019. 10. 30).

3) 각주 1의 NHK.

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라는 입장

- 미츠비시중공업은 “정부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라는 입장
- o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츠비시중공업으로 하여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함. 미츠비시중공업이 배상을 하지 않자, 원고 측은 미츠비시중공업의 영문표기 ‘MHI’ 를 비롯, 로고마크 등 상표와 특허를 압류, 현금화하는 절차를 재판소에 신청한 상황임.

□ [일본 언론 동향]

- 모테기(茂木) 외무장관은 이르면 연내에도 일본 기업들의 자산 현금화가 진행될 수 있는 것과 관련, “다양한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고 발언
- 이와 관련하여 NHK는 “만약 기업들의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대항 조치를 실시할 생각임을 나타낸 것” 이라고 평가⁴⁾
- o 아사히 신문은 현금화될 경우를 대비,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및 한국 정부에 대해 배상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⁵⁾
- * 일본 정부는 현금화로 인해 입은 피해와 상응하는 피해를 한국 측에 줄 수 있는 일련의 대항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
- * 외무성 간부는 자산의 현금화가 된다면 “상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일 관계는 끝일 것” 이라고 논평

4) 각주 2의 닷케이.

5) 「(時時刻刻) 元徴用工訴訟、迫る資産売却 日本企業に賠償判決1年」 『朝日新聞』(2019. 10. 30).

2. 한국의 불매운동 관련

□ [동향]

- 일본의 9월 대한민국 맥주 수출액이 전월 대비 약 98.8% 감소⁶⁾
- o 재무성이 발표한 9월의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대한민국 맥주 수출액은 전월대비 약 98.8% 감소한 58만 8,000엔으로 나타남.
- o 2018년 9월 일본의 대한민국 맥주 수출액은 7억 8,485만엔이었음.

□ [일본 정부 동향]

- 스가(菅) 관방장관은 한국 내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일본 기업에 경제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할 것이다. (양국 정부 관계가 좋지 않아도) 경제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발언⁷⁾

□ [일본 언론 동향]

- 일본의 일부 언론(静岡新聞)은 일본산 맥주의 2018년 대세계 수출 가운데서 한국 수출이 상위권이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 맥주 제조업체들은 한일 관계 악화가 장기화되면 영업실적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⁸⁾
- 또한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반발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불매운동이 일본의 식료품, 의류 관련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⁹⁾

6) 「韓国向けビール輸出98.8%減少 日本製品の不買運動影響か」 『NHK NEWS WEB』 (2019. 10. 30).

7) 「韓国内での不買運動に懸念 「従来通り経済活動を」菅官房長官」 『NHK NEWS WEB』 (2019. 10. 30).

8) 「ビール韓国輸出99%減 フッ化水素も、不買運動響く 9月」 『静岡新聞』 (2019. 10. 30).

9) 「韓国向けビール輸出、99.9%減」 『朝日新聞』 (2019. 10. 30).

3. 불화수소의 대한국 수출 관련

□ [동향]

-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대한국 수출량은 9월에 100킬로그램(금액기준 372만엔)이었음.¹⁰⁾
- o 전년동월에 대한국 불화수소 수출량이 3,283톤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급격하게 감소한 수치임.
- o 이와 관련하여 닛케이는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후인 2019년 8월에 대한국 수출량이 제로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소폭 상승한 것이라고 보도

10) 「韓国向けフッ化水素、100キロ輸出。」『日本経済新聞』(2019. 10. 30).